

# 日本 석유산업의 생존전략

## - 규제완화와 중점 투자 동향 -

### 1. 머리말

최근 日本의 자원에너지廳이 밝힌 元賣 등 석유14사의 '88년도 결산실적을 보면, 日本 석유회사들의 체질 개선은 진행되고 있으나, 제조업 전반에서 보면 여전히 낮은 수준에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14社 전체의 '88년도 매출액은 9조 6,391억円으로 전년도 대비 7%가 감소하였으나, 円高, 저유가로 인하여 코스트가 감소, 매출원가가 대폭으로 저하되었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24.0%가 증가한 3,013억円で 되었다. 또한 금융수지도 개선되어, 경상이익은 전년도 대비 230억円(11.9%)이 증가한 2,241억원을 나타내었다. 이 결과, 매출액 경상이익률은 2.3%가 되어 '87년도의 2.0%보다 상승하였으며, 자기자본율은 '87년도의 15.3%에서 '88년도에는 17.3%로 상승하였다.

자원에너지청은 얼마전 PQ 폐지후의 시황상황등에 대하여 元賣 및 상사와의 공청회를 가졌는데, 그 결과, 전체적으로 규제완화 노선을 잘 받아들이고 있으며, 시황도 대체로 평온한 상태에 있다는 견해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청회 결과를 보면, (1)규제완화에 대해서는 PQ 폐지후 3개월을 거치면서 규제완화 노선의 착실한 진행을 정확히 받아들여, 그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2)시황에 대해서는, 현재 상태로는 결산의 악화가 필연이라는 견해가 원매, 상사 모두에 지배적이고, (3)휘발유 시황은 전체적으로 원매, 상사 모두 「시황유지」라는 점에서 일치된 인식을 갖고 있으며, 그 대응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의 쫓점은 중간유분 3품을 적정가격으로 하기 위한 대응으로, 이것이 적정수준으로 되면 규제완화에 서의 시장이 형성된다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다.

금년도 중에 주유소의 건설지도 철폐등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휘발유의 판매도 예측을 불허하는 심각한 상황하에 있다. 앞으로도 규제완화가 석유산업에서 계속 진행되겠지만, 요는 휘발유, 등유, 경유 등의 가격 체계를 국제수준으로 하지 않으면 자유화 노선도 효과가 없으며, 오히려 하반기부터는 가일층 경영에 압박을 받게 될지도 모른다.

英國과 西獨등이 거의 같은 가격수준인데 비하여, 日本은 휘발유가 등유가의 2배 이상이나 되는 이상상태를 계속하고 있다.

통산성이 조사한 금년도의 증설계획을 보면, 석유제품의 수급구조 변화를 반영하여 석유분해 설비등 석유정제 2차설비에 대한 투자와 주유소, 저유소에 대한 효율화 투자가 중심으로 되어 있다. 특히 유통부문은 2,016억円で 전년도 대비 37.9%가 증가하였다. 주유소는 1,728억円で 전년도에 이어 정유공장 부문을 상회하는 투자액으로 되어, 각사가 얼마나 판매 합리화와 효율화를 지향하고 있는가를 엿볼 수 있다.

원매각사의 4-6월 월차 결산은, 4월은 그렇다 치더라도 5, 6월은 완전히 적자였다. 7월은 5월의 가격인상이 6월보다 침투하였기 때문에 업적은 약간 호전되었는데, 8, 9월에 5, 6월의 적자를 보충하여 상반기(4-9월) 토달, 흑자를 계상하는 것이 최고 경영진의 커다란 과제일 것이다.

## 2. 설비투자과 다각화의 방향

일본총업은행이 지난 봄 앙케이트 조사한 바에 의하면, 日本석유업계의 설비투자 계획은 '89년도에 3,430억 円(전년도 대비 18.9%증가)으로 되어 있다. 내용적으로는 판매력 확충을 위한 주유소 투자와 경질유 수요 증대에 대응한 2차 설비 증강으로 되어 있다. 18.9%의 신장률은 '88년도의 9.5% 신장의 2배 가까운 것으로, 확대기조에 있다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번에는 각 기업 모두 능력증강 투자에 더하여, 구조전환에 의욕을 나타내는 설비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것도 업종 전체에서 '88년에 13.8%의 증가를 나타내어 3년만에 2자리대의 증가를 기록하였는데, 그 실적을 4.7%나 상회하는 확대를 보이고 있어, 기업의 투자마인드가 여전히 쇠퇴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석유업계 전체의 조류가 되고 있는, 요컨대 주유소 투자의 확대는 규제완화에 따른 경쟁격화를 예측한 판매력 강화이며, 정제용의 2차 설비 투자증강도 수요가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고부가가치화를 추진, 체질강화를 도모하려 하는 것으로, 구조전환의 일환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절대액은 어떻든, 18.9% 증가라는 신장률은, 타업계와 비교하더라도 높은 것으로, 적극적인 자세라고 볼 수 있다.

한편, 현재의 가동률을 보면, 철강과 전기기계, 자동차 등 대부분의 업종이 90%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것에 반해, 가스의 76.5%와 함께 78.6%로 저조하다. 기타 70%대는 전력 뿐으로 에너지 공급 관련업제만이 뒤쳐져 있다. 이 때문에 '89년도의 능력증강 투자수준도 석유업계의 경우는 25.0%로 낮은 비중으로 되어 있다. 이에 비해, 가스는 43.9%, 전력은 34.5%로 석유업계와는 다른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25%라는 수준은 철강의 23.5%, 섬유 23.8%, 건설의 24.4% 보다는 높다.

석유업계에서는 '89년도의 생산능력 신장을 평균 2.9%로 보고 있는데, 그 내역은 제자리걸음으로 보는 견해가 56.0%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5%미만의 증가가 32%, 5-20%의 증가가 12%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각 석유회사의 경영다각화에 대한, 석유산업

활성화 센터의 조사는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 (1) 수직통합형

日本石油, 出光興産, 昭和シェル石油, 太陽石油 등은 원유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원유개발에서 제품판매까지를 일관함으로써 석유본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해 나가는 것으로, 석유본업을 중심으로 하여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앞으로의 방향.

### (2) 異分野 진출중시형

共同石油, 코스모石油, 東燃은 石油를 사업의 중심으로 하면서도 적극적으로 타 분야에 대한 전개를 도모하고 있다. 소매분야, 서비스, 레저분야, 첨단기술분야 등 방향은 여러가지.

### (3) 사업재편형

興亞石油, 鹿島石油 등 정제전업회사는 설비고도화, 합리화를 추진하고 있다. 합리화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잉여인력의 고용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비스분야, 정보분야 등에 진출. 유흥지의 활용에 의한 신규사업의 추진.

이처럼 세가지 타입의 다각화로 대별되지만 「석유회사는 기본적으로는 석유를 중심으로 기업을 생각하고 있으며, 유흥 경영자원의 활용을 꾀하면서 서비스 분야 등으로 서서히 진출한다고 하는 것이 당면의 방향」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 3. 정제시설 대응

資源에너지廳은 상압증류장치의 과잉설비 처리를 계속 정제 원매회사에 지도해 나갈 방침이다. 경기호조를 배경으로 연료유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설비는 과잉이기 때문이다. 에너지청에 의하면, '93년도에 내수전망 2억 2,741만 kl에 대하여 상압증류장치의 필요 능력은 425만 7,000b/d로 보고 있다. 현재가 455만 1,610b/d이기 때문에, 29만 4,610b/d가 과잉이라는 것이다. 과잉설비는 정유공장의 가동률 저하를 초래, 정제, 원매의 고정비용을 증가시킨다.

자원에너지廳은 금년 7월말 특정설비의 신설, 개조 등의 상황을 발표하였다. '89년 4-7월에서는 신설 5,7-

00b/d, 개조(증설) 5,000b/d로, 합계 1만700b/d, 또한 설비폐기는 4만 4,300b/d로 되었다.

금년도 들어서의 동향은, 신증설은 적지만, 감압증류 장치를 중심으로 한 폐기가 두드러졌다. 이것은 규제완화라고 하는 자유화 속에서, 설비의 기본방침에 대하여 각사 모두가 각각의 대응을 추진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단, 石油수요의 회복현상이 일과성의 것은 아닌가 하는 견해도 있어, 설비처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면도 있다. 그러나 수요의 변화, 유종별 수요의 변화라는 커다란 요인도 있기 때문에, 경질유 중심의 설비에 대응하기 위한 감압증류장치의 설비에서 2차 설비로의 이행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日本の 7월말 현재, 설비능력의 내역은 다음과 같은 상황이다.

出光興産은 전국 5개 정유공장의 생산분업체제를 강화한다. 각 정유공장의 입지 환경과 생산규모에 따라, 생산 품목마다의 역할 분담을 결정, 부가가치가 높은 경질화율을 높이고, 아울러 전체의 생산효율을 높인다. 휘발유의 생산처리 한도(PQ)의 폐지에서 원유처리 한도폐지로 진행되는 규제완화의 흐름에 대응하여, 제조 부문의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으로, 분업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정유공장간 및 타 메이커와의 사이에서 제품용통에도 힘을 기울인다.

생산분업의 최대 목표는 수요가 감소하고 부가가치도 낮은 중유의 생산비율을 낮추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중유의 생산, 판매는 서서히 兵庫 정유공장에 집약하고 판매도 관서지구를 주축으로 해 나가며, 이에 따라 등유, 경유의 수요가 많은 북해도 정유공장과 최신예의 愛知 정유공장에서는 중유생산을 최저한까지 줄이고, 경질유의 생산효율을 높인다. 5개 정유공장 중 가장 넓고 부지면에서도 여유가 없는 徳산 정유공장은 100% 출자 자회사인 출광석유화학과의 협력하여, 석유화학 제품의 생산을 강화해 나간다. 이미 파라크실렌 등의 생산을 취급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스틸렌모노머 등으로도 범위를 넓혀 석유화학에로의 이동을 추진한다. 出光의 경질화율은 '88년도에 80.5%에 달하고 있지만, 최근 수요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여 수익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비율을 더욱 높일 필요가 있다.

또한, 전액출자회사인 沖 석유정제에 휘발유의 생산

日本の 정제능력 현황

(單位 : b/d)

常 壓 蒸 溜	4,551,610
減 壓 蒸 溜	1,804,740
接 觸 改 質 (異 性 化)	623,400 (2,700)
接 觸 分 解	640,600
알 킬 레 이 셴	41,300
水 素 化 分 解	86,000
熱 分 解	86,000

설비를 신설할 계획이다. '91년도 중에 원유처리량의 행정지도가 철폐되므로 동사의 기능을 강화한다. 동시에 금지되어 있는 석유제품의 수출과 외국으로부터의 수탁정제사업이 완화되는 방향에 있기 때문에 한국과 동남아시아 방면의 수출 거점으로서 육성할 계획이다. 10월경까지 투자 계획을 완성하여 통산성에 설비신설을 신청할 것 같다.

계획으로는 나프타를 휘발유 基材로 정제하는 접촉 개질장치를 도입한다. 촉매를 연속해서 재생할 수 있는 신예 CCR 방식으로 할 방침이며 능력은 1만b/d 정도를 검토하고 있다. 투자액은 50억엔을 상회할 전망이다. 원유처리의 규제가 없어지는 '91년도 중에 완성시킬 의향이다.

興亞石油은 석유정제 과정에서 유황분을 제거하는 탈황장치의 처리능력을 내년 9월까지 약7할 증강한다. 조달원유를 저유황인 인도네시아 원유에서 유황분이 많은 중동산으로 대체하는 것에 대응한 조치. 인도네시아산은 최근 약간 비싸다는 느낌을 주고있기 때문에, 향후 同國産 원유의 수입을 줄이고 탈황 설비를 증강하려는 움직임이 다른 석유회사에서도 확대될 것 같다.

동사는 현재 탈황장치를 2종류 가동시키고 있다. 상압증류장치에서 분해한 원유를 대상으로 하는 등. 경유 탈황장치와 감압증류 장치로부터 나오는 중유분이 대상인 감압증류 탈황장치로 大阪 정유공장에는 1일 처리량 1만 4,000배럴의 등·경유 탈황, 麻里布 정유공장(山口縣)에는 同 1만배럴의 감압증류 탈황장치를 각각 두고 있다. 大阪 정유공장에서는 내년 8월 완성을 목표로 하여 능력을 同 1만 1,000배럴 증강, 마리포 정유공장에서는 5,000배럴의 증강을 내년 9월까지 행할 예

정. 투자액은 40-50억円で 전망.

#### 4. 신규제품의 개발 · 고도화 노력

석유업계는 석유에 포함된 유분을 보다 본격적으로 高度利用하기 위한 행동에 나섰다. 그 예를 몇가지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 (1) 분해경유로부터 디메틸나프탈렌 생산

코스모石油와 昭和셀石油가 코오베製鋼所와, 九州石油가 新日鐵化學과 제너랄石油는 단독으로, 모두 분해 경유로부터 디메틸나프탈렌의 분리, 회수기술의 연구개발에 돌입하였다. 液晶, 의약용으로써의 용도가 보이는 디메틸나프탈렌을 타겟으로, 석유 유분에서 특정 품목의 추출 기술을 연마, 사업다각화의 「기폭제」로 삼고자 하는 계획. 석유를 줄곧 연료로서 생각해 온 석유업계의 사고 전환점으로서 주목된다. 이것은 가까운 장래, 휘발유, 경유대체용의 메타놀의 대두까지도 고려되는 등, 업계 환경의 어려움이 증가되어 왔기 때문에, 석유 가운데서 효율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분의 추출에 나선 것. 분해 경유중에는 석유화학 원료와 달리 다종 다양한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조성을 알 수 있고, 용도도 판명되어 있는 것이 디메틸나프탈렌이다. 함유율은 1% 정도이지만 이것을 고농도로 분리하고자 하는 것이 4社의 테마이다.

##### (2) 경질 나프타에서 하이옥탄 휘발유를 생산

미쓰비시石油는 千代田化工建設과 공동으로 하이옥탄價 휘발유의 생산에 성공하였다. 하이옥탄 휘발유는 중질 나프타에서 생산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제오라이트계의 신축매를 개발함에 따라 중질 나프타보다싼 경질나프타에서 옥탄가 100이상의 제품을 높은 수율로 회수하는 기술을 확립하였다. 상업화하면 부가가치가 높은 하이옥탄 휘발유를 낮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다. '90년 가을까지 川崎 정유공장내에 수백 b/d의 시험 플랜트를 건설한다.

신제품은 반응탑에 넣는 촉매에 제오라이트계의 多孔質 소재를 사용하는 것이 특징. 가열하여 가스화한 경질나프타를 이 촉매로 보내면 脱水素環化가 진행되어 옥탄가가 올라가는 구조로, 옥탄가 약 60의 경질나

프타가 同 100이상의 하이옥탄 휘발유로 된다. 경질 나프타 외에 부탄가스, 프로판 가스에서도 고옥탄 휘발유가 만들어 진다.

현재 하이옥탄 휘발유는 중질나프타를 백금 촉매로 개질하여 생산하고 있는데, 이 방법으로는 옥탄가 100이 한도였다. 그런데, 신제품을 사용하면 더욱 옥탄가가 높은 고성능 휘발유를 얻을 수 있다.

##### (3) 로켓트 연료

日本石油와 일본석유화학은 장래의 액체 로켓트용으로 새로운 고밀도 탄화수소 연료를 개발하였다. 신연료는 시크로펜타젠을 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것으로 밀도가 높고, 발열량이 크며, 상온에서 고체로 되지 않는 등, 로켓트용에 적합한 특성을 갖고 있다. 일본 석유그룹은 신연료로 (H2 로켓트) 이후의 국산 우주로켓트용으로 제안할 계획이다.

日本石油그룹이 개발한 신연료는 HDF1, HDF3라고 불리는 탄화수소연료. 국산우주용 "H1 로켓트"의 제1단 엔진 연료로는 RJI로 불리는 고밀도탄화수소 연료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번 試作品의 비중은 HDF1이 0.966, HDF3가 1.006으로 RJI의 0.852를 상회하는 고밀도이다.

현재 넓게 사용되고 있는 액체수소는 推力이 높아 고성능이지만 밀도가 작으므로 낮은 고도를 비행시킬 경우 경제성의 면에서 불리하다고 한다. 그래서 제1단 보조 로켓트등 저고도에서 사용하는 엔진에서는 탱크용량이 작고, 추력이 큰 고밀도 탄화수소 연료가 요구되어, 각국에서 연구가 진행중에 있다.

日本石油그룹은 신연료가 장래 우주로켓트의 저코스트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자신을 보이고 있다.

##### (4) 분해경유를 실내 스토브연료용으로서 판매

日本石油는 원유 2차처리설비의 하나인 접촉분해장치(FCC)에서 발생하는 분해경유를 이용하는 실내 스토브의 개발에 열중. 석유 정제과정에서 발생하는 유분의 신이용법을 개척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을 노리고 있다.

분해 경유는 1차처리설비의 상압증류장치로부터 발생하는 중질경유를 2차 설비의 하나인 FCC에 걸었을 때, 석유가스 및 분해가스와 동시에 나오는 副生溜分,

분해 휘발유는 휘발유의 원료로 되지만, 분해경유는 세탄가가 낮기 때문에 착화성이 나빠 디젤 엔진유로는 사용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이제까지는 중유의 程度調整齊로 밖에 사용되지 않았다.

계획으로는 우선 역등의 대합실에 흔히 있는 굴뚝으로 옥외배기하는 포트형의 스토브를 상정한다. 난방용 등유의 수요가 많은 북해도를 주소비지로 하여, 室蘭정 유공장 내에 실험설비를 둔다. 세탄가가 낮기 때문에 대량으로 발생하는 매연을 억제하는 것이 커다란 과제.

(5) 석유화학 사업에 대한 진출

석유업계가 하류부문인 석유화학제품의 설비증가에 착수하였다. 특히 파라크실렌, 벤젠 등 방향족 석유화학제품 플랜트의 신증설 계획이 무성하다.

昭和셀石油와 東亞石油은 금년 9월에 인파라핀 용제의 생산, 판매를 시작한다. 동아석유 川崎정유공장에 제조 플랜트를 신설 중에 있으며, 생산능력은 연간 1만 5,000톤. 인파라핀 용제는 잉크, 도료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향후 고도성장이 전망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규참입을 결정하였다.

인파라핀 용제에 대한 진출은 유동접촉분해장치(FCC) 副製品의 유효 활용책으로, FCC에서 발생하는 부생부덴으로부터 합성한 중합체를 독자적으로 개발한 수소화 기술로 99.8%의 고순도 용제를 얻는다. 냄새가 적은 것도 특색이라고 한다. 제조플랜트 건설비는 약 10억円.

신용제의 판매는 소화셀 그룹의 셀화학과 昭和化成이 담당한다. 인파라핀 용제의 시장은 아직 연 2만-3만톤 정도이지만 昭和셀그룹은 수요증가를 겨냥하여 5년 후에는 연 1만 5,000톤의 풀 생산에 들어갈 계획

이다.

5. 열병합발전(Co-Generation).

日本석유업계는 지역 냉난방 사업의 수주를 목표로 하여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제1탄으로서 동경臨海副都心用 프로젝트를 석유연맹의 이름으로 동경도에 제안하였다. 이 계획에는 석유를 사용한 열병합발전 시스템을 담고 있어, 전력, 가스에 비해 코스트가 매우 낮다. 대규모인 지역냉난방 사업을 석유회사가 단독으로 수주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여 결속하였다. 수주가 가능하면 공동출자 회사를 설립하여 추진할 전망이다.

都에 제출한 계획안에서는 열전병합을 사용하여 냉·온수외에 전기도 공급한다. 연료인 석유는 기존의 항만 시설을 이용, 지하 파이프 라인으로 공급한다. 전기 출력은 3만 Kw로 地區 전체 필요용량의 1/10 규모이며, 전력 공급량에서는 전체의 1/7에 해당하는 연간 1억 Kw시를 조달한다. 연간 석유소비량은 13만 Kl로 시산하고 있다. 연료로 등유를 사용한 경우, 전기에 비해 6할 이상, 가스에 비해 3할 정도 싼 Running Cost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시산하고 있다.

석유연맹이 겨냥하는 임해부도심, 東京테레포트타운 계획은 江東, 港, 品川の 3구역에 걸친 448만㎡의 매립지에 건설하는 것이다. 국제전시장, 인텔리전트 빌딩, 고층주택 등 4조円을 투자하여 21세기 초까지 완성하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

6. 주유소의 변신(다각화 경영)

日本 통산성의 조사에 의하면, '89년도의 주유소 투자는 1,728억円(전체 투자액의 42%) ('88년도에는 1,265억円으로 전체 투자액의 40%)으로, 주유소 부문을 중심으로 판매관계 부문용 투자가 많다.

최근 휘발유 판매의 최전선에서는 전에 없던 격심한 경쟁이 전개되고 있다. 각 주유소 마다, ①건물의 미화, ②다각화, ③화려한 광고선전, ④영업시간 연장 등이 상투적인 수단으로 되었다.

확실히 어느 주유소에서나 지저분한 인상은 사라지고 밝은 느낌을 주게 되었다. 상층에 사무실을 만든

日本 석유회사들 석유화학시설 신설 계획

會社名	製品分野	新增設規模	稼働時期
日本 鑛業	알킬레이션	年15萬톤	1990年夏
三菱 石油	"	"	1990年秋
제비렐 石油	"	"	1990年秋
日本 石油	"	年25萬톤	1990年秋
昭和셀 石油	크 실 렌	年13萬톤	1990年末
日本 鑛業	벤 젠	年10萬톤	1990年末

(註) 자회사의 운영도 포함.

고층화 주유소, CVS와 Fast Food Shop을 병설한 주유소도 있다. 24시간 영업하는 주유소도 증가하고 있으며, 시즌마다 캠페인도 화려하다.

석유원매 각사는 계열 주유소의 판매망을 활용하여 잇달아 식품의 제조, 판매에 진출하고 있다. 日本石油은 바이오 연구의 성과를 살려 비타민C 발포 청량음료의 판매를 시작하였고, 出光興産, 코스모石油 등도 건강식품 분야에 진출하였다. 자동차 관련상품, 잡화에 이어 주유소망을 이용한 다각화 전략이다. 석유업계는 규제완화로 인한 생존경쟁의 시대를 맞아, 계열 주유소를 포함한 경쟁력의 향상에 힘을 쏟고 있다.

昭和셀石油은 계열 주유소의 자유화 대책으로 '90년도부터 「화장지에서 자동차까지」를 목표로 주유소 고객 데이터를 활용한 「무점포 판매」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생선 식품의 산지 직송 판매의 판매창구이며, 장기적으로는 주유소를 “미니 백화점화”할 방침이다.

원매 각사는 자유화 시대의 주유소 생존작전으로서 油外 상품의 취급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다. 共同石油은 편의점 병설을 주축으로, 카탈로그 판매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昭和셀石油에서는 내년도부터 주유소에서 「무엇이든 알선 판매하는」체제를 확립할 준비에 돌입하였다.

목표로서는 가장 수요가 많은 생선식품을 최근 유행하고 있는 산지 직송판매를 주축으로 하여, 화장지에서 고액의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알선 판매가 가능하다. 무점포이지만, 미니백화점화한 조직을 갖출 계획이다. 또한, 이같은 주유소의 무점포 판매를 위한 주축으로서 주유소의 POS도입→온라인화를 예상하고 있으며, 주유소에서의 수주창구로서 계산센터를 건설 중이다.

## 7. 맺는말

개인소비가 견조한 추이를 보이고 있고, 민간 설비투자도 제조업을 중심으로 일층 성장한 결과, 경기는 순조롭게 확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석유업계는 增收減益의 패턴을 계속하고 있다. 이것은 현재 日本석유업계의 일반적인 경향을 정확하게 나타낸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경기호황을 반영하여 日本의 수요는 휘발유, 경유 등의 수송용 연료유를 비롯하여 B-A유, 전력용 B-C유 등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판매가격 인상은 휘발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경유 등의 중간제품이 생각한 것처럼 오르지 않고, 거기에 더하여 원유가격의 상승과 엔화 절하가 제품 원가상승을 초래하여, 제품은 양적으로는 많이 팔렸지만, 이익면에서는 수익을 압박하는 결과로 되어 있다. 全社적으로 보더라도 1-3월에 대하여 4-6월은 매우 악화되어 있는 것이 실정으로, 1-3월은 흑자, 4-6월은 적자를 나타내고 있다. 향후 석유업계에 있어서 시황의 사정은 생존을 위한 최중수단이 될 것이다.

그러나, 석유산업이 근본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과당체질이다. 매상고 이익률은 2%대로, 제조업 평균인 5%에 비해 거의 1/2이며, 자기자본율은 제조업 평균이 약35%, 석유업이 15%이다. 日本의 기업은 대체로 단기의 업적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 비하여, 석유업은 단기의 업적보다도 세어 중시 지향이 강한 것 같다. 따라서 결과적으로는 사후조정이 이루어져 원매회사는 항상 苦境에 직면하게 되는 패턴이 남아 있다.

♣

부존자원 적다말고  
낭비풍조 반성하자